

MS의 마구잡이식 특허출원 문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엑셀에 대한 특허권을 완전히 거머쥐어 기본적인 원리와 모델을 활용한 스프레드 시트의 개발 자체가 원천 봉쇄 되어 미국 내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MS는 현재 연간 3천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 '매년 3천 건 이상 특허를 따내겠다'고 발표한 빌 게이츠 MS 회장의 방침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같은 전략은 거센 반발과 함께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는 마구잡이식의 특허출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특허청은 쏟아지는 MS의 특허출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컴퓨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아예 인정해선 안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공공특허재단 측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 철폐는 공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더 나은 프로그램 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엑셀의 경우에도 20년 전부터 꾸준히 발전해온 스프레드 시트를 개량한 프로그램으로 과거에도 지금처럼 특허 제도가 엄격히 적용됐더라면 엑셀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특허권 철폐론자들은 지적한다.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인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막 일어나던 1970~80년대나 필요한 것이지만 MS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현 시점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RFID 특허 관리 컨소시엄 등장

미국 RFID(전파 식별, 소형 반도체 칩을 이용해 사물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 전문업체들이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허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8월 10일 보도했다.

심벌과 에일리언, 체브라테크놀로지 등 20여 RFID 전문업체는 'RFID 지적재산권 라이선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모든 RFID 관련 특허계약을 윈스톱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에버리데니스사의 데니스 부사장은 '과거 DVD 업계와 MPEG2 업계가 힘을 모아 표준 규격을 발전시킨 것처럼 RFID 특허기술도 한 곳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 회원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특허료를 산정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FID 기술은 머지 않아 월마트 같은 유통업체에서 바코드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러 업체가 난립하면서 표준화 문제가 상용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BI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미국 RFID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특허는 3천여 건에 달한다.

라져 기분이 상쾌했다.

'야, 정말 좋은데.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고 여태 그 고생을 하다니... 참, 이일로 고생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닐거야. 이 방법을 널리 알려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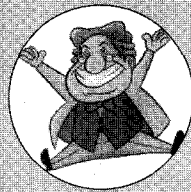
아라이는 곧 특허청으로 달려가 의장 출원을 했다. 이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 받자 신발업체들은 줄을 이어 아라이를 찾아왔다. 이 방법은 장화에는 물론 운동화까지 채택되었다. 비가 오면 신을 수 없는 단점이 있었지만, 1년 중 비오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통풍 구멍이 뚫린 디자인의 장화와 운동화는 무섭게 팔려 나갔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 생선가게에서 허드레 심부름꾼으로 일하던 아라이는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당당하게 로열티를 받는 디자이너 겸 발명가가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요즘 마라톤 선수들이 신고 있는 신발의 통풍 구멍도 바로 아라이의 디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왕연중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팀장(부장). '발명가가 되는 60 가지 방법' 등 발명도서 94권 집필, 한국과학기술도서상 저술상 수상,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협력교수, 과학기술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산업포장 등 수상.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출원·특허등록 하는 방법 ⑨

상표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